

남획 막고 방류하니 세발낙지 돌아왔다

무안군 자원회복 프로젝트 총력 금어기 지정 운영·어미낙지 방류 2023년 어획량 30% 가까이 증가

무안군이 어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지 자원 회복 정책이 어획량 증가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무안군은 올해 낙지 금어기를 21일부터 7월20일까지로 지정해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금어기에 맞춰 어미낙지 3만 2000여 마리를 연안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정정갯벌 무안에서 생산되는 낙지는 다리가 가늘고 길어 세발낙지라고도 불리며, 감칠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남획과 해양환경 변화로 급속하게 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무안군에서는 자원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는 탄도만 일원에 약 200ha의 낙지 보호수역을 지정해 산란시기에 안전한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직접적인 낙지 개체수 증식을 위한 교점된 어미낙지를 방류하는 '낙지목장화 사업'을 통해 어촌계 스스로 낙지를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 2020년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 공모사



무안군 어민들이 낙지 금어기에 맞춰 어미낙지를 방류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업에 선정돼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탄도만 일원에 인공 낙지산란장을 조성해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회복에 나서고 있다.

군은 인공 낙지산란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업효과 분석과 자원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원조성의 노력으로 무안군 낙지 어획량은 2021년 12만 점에 비해 2022·2023년 15만

점 이상 포획돼 약 27% 증가하는 결실을 거뒀다.

나제철 무안군 해양수산과장은 "낙지는 양식이 되지 않고 기온이나 수질오염 등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인위적인 자원조성은 한계가 있다"면서 "어업인 스스로 무분별한 남획을 금지하고 금어기를 준수하는 등 자원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진도군 민관 지역상생 공모 선정 국비 50억 등 3년 122억원 확보

진도군이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간 국비 50억원을 비롯해 1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민간기업·단체가 지자체와 지역맞춤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전국 9개 시군이 선정된 이번 공모사업에서 진도군은 '진도의 맛있는 협력, K먹거리의 건강한 삼합'이라는 주제로 최종 선정됐다.

진도군은 농수산 유통물류 기반시설 구축과 농어가의 먹거리 생산, 민간기업의 소비연결을 '건강한 삼합'으로 표현했다.

진도군은 유통·물류시설이 부족해 외부 물류업체 위탁 운영으로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수특산물 유통물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농수특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디지털 물류체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진도서망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진도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등과 연계한 물류 산업 기반의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신안군의회의가 25일 열린 320회 1차 정례회에서 '신안군 플라스틱 제로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의회의 '플라스틱 제로 조례안' 의결

순환경제 집행계획 수립 등 명시

'플라스틱 배출 없는 섬'을 추진하고 있는 신안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했다.

신안군은 25일 열린 신안군의의회 320회 1차 정례회에서 박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안군 플라스틱 제로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은 '신안군 플라스틱 제로' 추진에 관한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정했다. 순환경제사회 문화 조성 및 집행계획의 수립 등을 명시했으며, 관련 사업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신안군은 지난 4월 군청에서 '순환경제도시, 신안 플라스틱 제로 2050' 선포식을 열기도 했다. 신안에서 나오는 농수산 부산물과 폐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보급할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안 의결로 신안군이 순환경제도시로 재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영암군, MZ세대 인기 '청무화과' 재배 확대

기술 개발 등 5개년 연구과제 수립

영암군이 2023~2027년 청무화과 5개년 연구과제를 수립,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상품성도 높이는 재배기술 개발에 나섰다.

영암군의 무화과 재배 구조는 홍무화과 95%, 청무화과 3%, 재래종 2%로 특정 품종의 쏠림현상이 심하다.

다양한 소비계층 확보, 기후위기 해충 피해 대응 등을 위해서는 품종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청무화과는 다른 품종에 비해 병충해나 겨울철 얼어 피해에 상대적으로 강하고 당도도 높아 젊은 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부터 삼목묘

를 농가에 보급해 청무화과 집니카의 재배기술을 실증연구하고 있다. 청무화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삼목묘 실증 농가에 청무화과 비율을 늘리는 선정까지 자율교환을 권장하고 있다.

연구과제로 개발한 표준 삼목묘도 영농기술 활용자료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검질이 얇아 유통이 어려운 청무화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센터 기술개발팀은 '과피 경도와 저장성 향상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권송희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연구사는 "청무화과 재배기술을 꾸준히 연구해 무화과 품종을 다양화하고 젊은 층 수요도 충족하는 등 재배 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영광군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올해 주요 현안 사업 추진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먹거리지원센터 건립 등 점검

영광군이 '영광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정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영광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회의는 김정섭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각 실과소장, 읍·면장, 서무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업무 계획 113건과 역점 시책 147건 등 260건의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영광군은 올해 주요 사업에는 ▲신성장동력산

업 육성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운영 ▲영광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성산공원 조성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 등이 있다.

영광군은 올해를 '영광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1000만 관광 시대를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남 대표 축제인 떠오른 '상사화 축제'와 '영광 e(이)-모빌리티 엑스포'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있다. 영광을 찾는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백수 해안도로, 불갑데마공원 등을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하반기 목포사랑상품권 100억원 규모 발행

목포시가 올해 하반기 목포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 발행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발행하는 목포사랑상품권은 카드형 상품권만 나온다.

목포시는 지류형 상품권이 점차 폐지되는 추세에 따라 7월부터 카드형만 발행한다.

단 상반기에 발행한 지류형 상품권은 소진될 때까지 모바일형과 합쳐 20만원까지 쓸 수 있다.

1인당 구매 한도(카드형)는 30만원이며, 할인율 7%가 적용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앱 '착'(chak)에서, 목포사랑카드형은 광주은행에서 발급·충전할 수 있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 음식점, 편의점, 학원 등 8800여 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모바일형은 18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수목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